

# 지식의 권력자들

정현기

연세대 교수·국문학

1964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자본의 힘이 있는 나라들의 등급을 매기면서 서방측 그룹은 제1세계이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2세계이며, 나머지 개발도상에 있는 77개국은 제3세계라고 밝힌 바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구분을 1974년인가 '유엔 자원 특별총회'에서 중국의 정치 실력자 등소평(鄧小平)은 "미국과 소련을 제1세계에 넣고, 미국을 제외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구 공산주의자들을 제2세계로 간주하며, 그밖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을 제3세계로 보아야 한다"(연세대 중문과 백원담의 박사학위 논문 참조)고 바꾸어 제의했던 모양이다. 이른바 제3세계론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나는 국문학을 가르치는 한 대학교수로서, 또 문학작품을 정독하여 비평을 쓰곤 하는 문학비평가로서 요즘 심한 정신적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교의 머리좋은 학생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모두 그들을 일정한 이론의 감옥 속에 처넣고는 세상 보는 법을 획일화하고 있거나 않는가 하는 차문이 이 몸살의 중심 징후이다. 서양에서 그것도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무수한 학자들의 수입지식 상품 선전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모두 눈이 멀고 이가 빠졌으며, 두뇌가 노쇠해지거나 않았는지 그게 늘 두렵다.

서양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의 많은 이론들을 자세히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너무 과장되게 거창한 권위로 포장해서는 이 나라의 젊은 지식인들을 주눅들게 한 다음 그것을 '독점 지식상품'으로 해서 고가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칸트, 헤겔, 루카치, 사르트르, 프로이트, 바흐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데리다, 푸코, 라캉, 심지어는 사이드까지 그들은 모두 지식권력자들이며, 이들의 이론에 빌붙어서 밥 벌어먹는 학자라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지식권력에 맞들인 딱한 속물들이 아닐까? (이런 속물들 속에서 나를 뺄 생각은 추후도 없다.)

그들의 명상이나 사색이 우선 자신이 마음 속에 수입해들인 지식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 구미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이 나라의 학문적 앞날은 너무 암담하지 않는가? 강의실에서 특하면 튀어나오는 '말씀(立言)'이 외국어투성이고 들먹이는 사람마다 서양인들이라면, 그것이 만일 외국문학을 강의하는 교실이 아닌 국문학교 실에서의 일이라면, 나는 우선 '그걸 '꼴불견'이라고 감히 말하겠다.

나이가 어린 시간강사들이 행여 반드시 필요한 '말 길'을 위해 그렇게 한다면 아직은 그가 자기 이론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에서 불가피하게 이해된다 할지라도, 나이가 45세를 넘어섰으면서 아직도 서양학자들의 이론서에 기대어 밥을 빈다면 일단 그가 어떤 지식권력자들의 하수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는 어느 누군가의 노예에 불과하니까.

중국의 문학비평가인 장이무(蔣頤武)등이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문학의 장래를 곰곰이 생각한다. 뭔가 새롭되 같은 '말씀'을 쓰는 우리 정조(情調)와 동떨어지지 않은 삶의 말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서양 지식권력자들의 하수인으로 서가 아니 진정한 서양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세계 문화라는 따위의 말은 바로 지식권력자들과 그들의 하수인 '말씀'이라 나는 쓴다. 그런 세상의 문화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

특별 앙케트 2 **서울국제도서전, 이렇게 하자**  
발전적 위상을 위한 출판계의 제언

특집/우리의 번역문화 8 **우리의 번역에 깔린 패배주의**—황현산

9 **번역가의 이중생활**—이재룡

10 **꼬리를 문 번역출판의 병폐**

11 **'번역서평'을 제안한다**—김옥동

12 **내 기억에 남아 있는 명번역서**  
김성곤/김태현/김천혜/이상화/장 실

15 **젊은 전문번역가들이 뛰다**

16 **번역가들의 번역이야기**  
김석희/이윤기/차경아

18 **한 번역가의 사전 열어보기**—이희재

책갈피 산책 19 **〈식민지 조선에서〉〈1945년 남한에서〉를 읽고**—김학준

기획 취재 20 **학생들이 일구는 캠퍼스 '꿈의 도서관'**  
대학중앙도서관 대안 기능...10여개 대학서 설립, 추진중

출판 화제 22 **'불심'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사찰**  
23 **도시의 탈출을 꿈꾼다**

출판계 소식 7 **한국의 현대시 CD-ROM 출시·외**

종합 서평 24 **민속학 연구의 탄실한 밑거름**—김광언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한국민속사입문〉

서평 25 **오세영 〈한국 근대문화론과 근대시〉**—윤여탁

빌링슬리 〈중국의 토비문화〉—최진규

26 **스미드 〈도덕 감정론〉**—서진수

잭 라일 외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유일상

27 **존 랑 〈건축이론의 창조〉**—이한석

책과 영상 28 **영상의 심판대에 오른 권력과 법**

이 책 그 사람 29 **〈대학이어 우리는 희망없이...〉** 펴낸 심선옥씨  
〈나의 꽃문화 산책〉 펴낸 손광성씨

새책 흐름 30 **지역차별의 깊은 상처 고발·외** / 인문·사회

32 **〈한미의학사〉** 펴낸 최재창 박사·외 / 의학·컴퓨터

34 **새책 속으로**

38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이중환

표지 사진 / 김지옥('96서울국제도서전에서)